

##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 심리특성 차이 분석 : 생활목표, 가족관련 가치, 학업기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

### 초 록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가 심리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심리특성으로는 생활목표, 가족관련 가치, 학업기대,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3,114명으로서, 서울과 전국의 6개 도에서 도시와 농촌지역 청소년 1,038명 및, 그들의 부모 각각 1,038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생활목표로서 청소년과 부모 모두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점에서 일치했다. 부모는 청소년보다 사회봉사를, 청소년은 부모보다 가정화목, 자아실현, 부귀영화를 더 중요한 생활목표로 인식했다. 둘째, 가족관련 가치에 대한 결과로서, 이상적인 결혼상대의 조건으로 청소년과 부모 모두 훌륭한 인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은 재미있는 사람이나 외모가 멋진 사람을, 부모는 경제력 있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하였다. 자녀 수에 있어 청소년과 부모 모두 2명이 적절하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청소년들이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 수를 이상적으로 인식하였다. 자녀의 성별 선호도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 모두 아들 딸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청소년은 딸을, 부모는 아들을 선호하였다. 자녀를 갖는 이유로 청소년과 부모 모두 심리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가 높았고 사회적 가치가 낮은 점에서 일치하였다. 집단별로는 아버지가 가문이나 아들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했고, 자녀양육의 즐거움과 같은 심리적 가치는 낮았다.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로서 개인적 제약은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아버지의 순서였다. 셋째, 청소년 본인보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하였다. 넷째, 청소년과 부모집단 모두 관계효능감이 가장 높고, 정치효능감이 가장 낮은 점에서 일치하였다. 청소년은 부모보다 관계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낮았다. 아버지는 청소년보다 어려움극복효능감 및 자기주장효능감이 더 높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나 청소년보다 정치효능감과 사회성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주제어 : 세대차이, 생활목표, 가족관련 가치, 학업기대, 자기효능감

\* 본 논문은 박영균·박영신·김의철(2006)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것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갈등이 생기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녀와 세대차이로 인한 고민을 갖곤 한다. 또한 교사들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 현장의 여러 상황에서 예상 밖의 태도를 학생들이 보일 때, 요즘 학생들은 옛날과 달라졌고 세대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부모나 교사만이 아니라 사회의 많은 성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 집단에 대해 지칭할 때, 요즘 청소년들은 다르고 세대차가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시대에는 세대차이는 존재하였지만, 특히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응에 생소한 기성세대는 디지털시대의 주역인 청소년세대들의 소통 방식에 거리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윤옥경(2000)은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대 사이버시대에서 컴퓨터 기술의 습득이나 인터넷 사용 등에서 나타나는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의 차이는 세대갈등의 골을 깊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연 기성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청소년과의 세대차이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의미하는가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관심을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201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과 기성세대는 어떠한 심리특성의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 경험과학적 자료에 기초하여 검증하고, 그러한 자료들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이라는 정체감을 유지하는 공통된 가치와 문화적 특성들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한 면으로 유지되고 또 한 면으로는 변화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관심의 초점이 있다.

그동안 세대차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손승영(2000)이 청소년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을 때, 학업 및 학교생활에서 두 집단은 매우 큰 의식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언·김의철·박영신(2000)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과 부모는 다양한 심리특성에서 세대차이를 나타내었다. 청소년은 보다 진보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부모는 보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였다. 또한 청소년은 인기직업을 부러워한다면, 부모는 안정되고 인정받는 직업을 선호하였다. 청소년은

부모보다 생활목표로서 가정화목, 자아실현, 부귀영화를 더욱 강조한다면, 부모는 청소년보다 사회봉사를 더욱 중요한 생활목표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과 성인 세대만이 아니라 노인세대까지 같이 비교한 연구결과에서는 이러한 세대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확대되어 나타났다. 김의철·박영신·김명언·이건우·유호식(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은 진보지향 가치가, 노인은 보수지향 가치가 가장 높았다. 청소년은 인기직업을 부러워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노인이 가장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였다. 생활목표를 비교했을 때, 청소년은 자아실현을, 노인은 사회봉사를 목표로 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세대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집단간의 통계적 유의도 차이에만 집중하여 세대집단별로 차이가 있다고만 결론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세대집단이 각 하위변인에서 나타내는 평균값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대간의 차이를 보이는 분석결과에서, 동시적으로 한국인이 세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특징들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의철 외(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 성인, 노인집단 모두 생활목표의 하위변인 중에 가정화목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5점 척도에서 세 집단 모두 4점이 넘는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에 부귀영화나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3점대 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생활목표 중에서 가정화목이 한국인에게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에서 한국 사람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높은 관계효능감을 지니고 있었다. 김의철 외(2000)의 연구에서 세 집단은 다른 효능감의 하위변인보다 관계효능감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즉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사회성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보다, 세 집단 모두 관계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비록 가정화목이라는 생활목표의식에서 세대 집단별 차이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가정화목을 중요한 생활목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관계효능감의 정도에서 세대차이가 있지만, 다른 효능감보다 한국 사람들은 관계효능감이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대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세대를 불문하고 한국인들이 한국문화 내에서 갖는 공통적인 심리 특징들이 더불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부모 세대가 심리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심리특성으로서 생활목표, 가족관련 가치, 학업기대, 자기효능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규명 과정에서 청소년과 부모집단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공통의 심리들에 대한 발견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런 특징들은 한국인의 문화적 특징들을 보여주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명언 외(2000)의 연구에서 시사된 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규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보완의 방향은,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집단의 세대차이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김명언 외(2000)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들이 밝혀졌지만, 서울과 인천시내의 중고등학교를 표집하여 청소년과 부모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결과로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세대 특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부모집단의 세대차이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탐색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의 6개 도에서 학교를 무선으로 선정하여 청소년과 부모를 표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내에서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도농 지역의 분포도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대 후반에 얻어진 이 연구의 자료들을 2000년 이전에 얻어진 김명언 외(2000)의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청소년과 성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더불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공통된 심리 특징들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로 판단된다. 연구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전국의 도농지역을 표집하므로써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세대차이에 대한 공간적 확대만이 아니라, 시간의 맥락에서의 비교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서 김명언 외(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세대를 비교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부모세대를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으로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차이가 청소년과 아버지 집단의 차이인지 아니면 어머니 집단과의 차이인지를 보다 명료히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리특성 변인들에서의 세대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김명언 외(2000)의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심리특성 변인들도 추가되었다. 가족관련 가치로서 이상적인 결혼상대에 대한 인식과, 자녀와 관련하여서는 자녀 수, 자

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 자녀를 갖는 이유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를 다루었다. 박영균·박영신·김의철(2006)도 이러한 시각에서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 문화갈등의 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의 차이를 청소년과 부모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보다, 청소년과 아버지 및 어머니 집단으로 정교하게 분류하여 재분석을 시도하여 봄으로써, 세대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부분이,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의 차이로 간단히 설명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과 특별히 아버지 또는 어머니 집단과의 차이인지도 정교하게 밝히려고 한다.

##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된다.

- 1) 청소년과 부모 집단은 생활목표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 2) 청소년과 부모 집단은 가족관련 가치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 3) 청소년과 부모 집단은 학업기대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 4) 청소년과 부모 집단은 자기효능감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를 위해 총 7개 지역, 즉 서울과 전국 6개 도(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에서 학교를 무선표집하여, 각 학교에서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표집하였다. 동시에 지역변인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청소년과 부모가 표집되었다. 총 3,289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그 중에서 청소년 1,127명, 그들의 아버지 1,075명, 어머니 1,087명으로 구성되었다. 수거된 질문지를 확인하여 학생과 부 또는

모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및, 비록 세 사람이 모두 응답하였어도 많은 문항에 응답을 빠뜨린 경우 등 불성실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은 최종 분석대상을 정리한 결과이다. 분석대상은 총 3,114명으로, 청소년 1,038명(도시 729명, 농촌 309명)과 그들의 부 1,038명 및 모 1,038명이었다. 전국 모든 도의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였다. 1,038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강남(10.5%), 서울 강북(8.2%), 경기도(15.3%), 경상도(15.1%), 전라도(10.1%), 충청도( 14.1%), 강원도 (15.0%), 제주도(10.1%) 무응답(1.5%)으로 고루 구성되었다.

〈표 1〉 분석대상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계
도시	729	729	729	2,187
농촌	309	309	309	927
계	1,038	1,038	1,038	3,114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이 470명(45.3%), 여학생이 558명(53.8%)으로 각각 거의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응답이 10명(1.0%)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631명(60.8%)이었고, 고등학생이 391명(37.7%), 무응답이 16명(1.5%)으로 분포하였다. 분석대상의 연령 평균은 14.83세였으며, 중앙치와 최빈치는 모두 14세, 연령분포는 12세~9세이었다. 분석대상의 가정경제수준은 최상(2.0%) 상(16.5%) 중(70.4%) 하(9.6%) 최하(0.8%) 무응답(0.7%)으로서,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약간 많았지만, 중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반적으로 정상분포를 이루었다. 본인이 지각하는 학업성취별 분포는 매우 높은 성취(9.7%), 약간 높은 성취(26.3%), 보통(38.2%), 약간 낮은 성취(15.1%), 매우 낮은 성취(5.7%), 무응답(4.9%)이었다. 따라서 중간 수준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많고, 높은 성취와 낮은 성취가 비슷하게 분포함으로써,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에서부터 낮은 청소년까지 고루 포함되었다.

아버지 집단의 연령 평균은 45.41세이고 중앙치와 최빈치는 모두 45세, 연령 분포는 34세~69세이었다. 어머니 집단의 연령 평균은 42.49세였으며, 중앙치는 42세, 최빈치는 43세였다. 연령분포는 31세~61세이었다. 아버지 교육정도는 초등 졸(2.0%), 중 졸(5.1%), 고 졸(39.7%), 대 졸(50.5%), 무응답(2.7%)로서 대 졸이 거의 반을 차지

하고, 그 다음으로 고 졸이 많았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초등 졸(2.1%), 중 졸(6.6%), 고 졸(51.2%), 대 졸(37.3%), 무응답(2.9%)로서, 고 졸이 반을 약간 넘고, 그 다음으로 대 졸이 많았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어머니 집단보다 학력이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무직(2.1%), 단순노동(2.6%), 숙련직(14.9%), 연예인 운동선수(0.7%), 자영업(28.6%), 사무직(23.4%), 전문직(11.8%), 관리직(8.5%), 고위 전문직(4.0%), 무응답(3.3%)으로서, 자영업과 사무직이 각각 2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다양한 직업 유형을 보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50.8%), 단순노동(4.9%), 숙련직(8.0%), 연예인 운동선수(0.1%), 자영업(16.7%), 사무직(6.3%), 전문직(8.2%), 관리직(0.8%), 고위 전문직(1.2%), 무응답(3.2%)이었다. 가정주부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직업 중에서는 자영업이 가장 많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최상(1.1%), 상(11.4%), 중(70.6%), 하(15.1%), 최하(1.8%)이었다. 중간이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거의 1/3이고, 상집단과 하집단의 분포가 비슷하여, 거의 정상분포를 나타내었다. 종합적으로 본인이 속하는 집단에 대해 최상류층(0.9%), 상류층(9.6%), 중류층(71.4%), 하류층(17.1%), 극빈층(1.0%)으로서, 중류층 지각을 1/3 정도가 하였으며, 상류층과 하류층이라는 인식을 하는 정도가 비슷하였다.

##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김명언 외(2000)가 제작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박영균 외(2006)가 사용한 것이었다. 측정변인의 문항구성과 신뢰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생활목표는 4개 하위변인(사회봉사, 가정화목, 자아실현, 부귀영화)으로 구성되었으며,  $\alpha = .68 \sim .81$ 이었다. 측정변인은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였다.

가족관련 가치를 측정하는 변인들로는 5개가 포함되었다. 이상적인 결혼상대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4개 하위변인, 즉 재미있고 취미가 일치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안정된 능력있는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 외모가 멋있는 사람을 포함하였다. 각 하위변인의 신뢰도는  $\alpha = .64 \sim .83$ 을 나타내었다. 이상적인 자녀 수 변인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부모가 모두 자유롭게 기록하였다. 자녀의 성별 선호도 변인은 청소년 경우 결혼하였을 때 낳기를 원하는 자녀의 성별을, 부모 경우는 자녀가 1명이라고 가정하

였을 때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을 질문하였다. 답지는 3개로 아들, 딸, 상관없음 중에서 1개를 고르도록 하였다. 자녀를 갖는 이유 변인은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 관계적 가치의 3개 하위변인을,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 변인은 개인적 제약, 사회적 제약, 외부적 제약의 3개 하위변인을 포함하였으며,  $\alpha = .59 \sim .81$  이었다. 관계적 가치에서 어머니 집단의 신뢰도가  $\alpha = .59$ 로서 약간 낮은 값을 보였으나 청소년과 아버지 집단은 각각 .62 .63으로 나타남으로써, 큰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적인 결혼상대, 자녀를 갖는 이유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 모두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학업에 대한 기대 변인은 1개의 문항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구해지지 않았다. 청소년에게는 앞으로 본인의 학업 기대를,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학업 기대를 질문하였으며, 답지는 고 졸, 대 졸, 석사 졸업, 박사 졸업으로 구성되었다.

자기효능감 변인은 Bandura(1995)의 질문지에 토대하여 번역 제작되었으며, 제시한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6개의 하위변인 즉 사회성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정치효능감으로 구성되었다. 답지는 1(전혀 잘할 수 없다)에서 5(매우 잘할 수 있다)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였다. 신뢰도는  $\alpha = .68 \sim .87$  사이의 값을 보였다.

### 3. 자료분석

서울과 전국 6개 도의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중 고등학생과 부모를 표집하기 위해, 각 학교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았다. 학교별로 책임을 맡은 담임교사가 질문지 실시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한 뒤에,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이나 단체활동 시간에 학생용 질문지 실시를 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부모로부터 받아서 제출하였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기 위해 모든 실시자와 응답자들에게 간곡한 부탁과 함께 사례를 하였다.

수거가 완료된 질문지는 성실하게 응답이 되었는지 검토되었다.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확정된 자료를 토대로, 배경정보에 대한 빈도분석과,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일원변량분석, Duncan 검중, X2 검중을 실시하였다.

<표 2> 측정변인 문항구성과 신뢰도

변인	하위변인	문항 예	문항 수	신뢰도			
				청소년	부	모	
생활목표	사회봉사	봉사의 생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5	.78	.73	.71	
	가정화목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5	.79	.81	.78	
	자이실현	자이실현 (보람된 일을 통한 의미있는 삶의 추구)	5	.68	.77	.75	
	부귀영화	부 (많은 돈을 가진 부자)	5	.78	.73	.72	
가족관련 가치	[이상적 결혼상대 재미/취미 일치 안정된 경제력 훌륭한 인격 멋있는 외모]	재미있는 사람 경제력 있음 인격이 훌륭함 잘 생긴 얼굴	4 4 4 3	.64 .83 .73 .83	.70 .81 .77 .78	.75 .78 .74 .74	
	[이상적 자녀 수]	이상적인 가족의 자녀 수	1	-	-	-	
	[자녀성별 선호]	자녀가 1명인 경우, 성별에 대한 선호도	1	-	-	-	
	[자녀 갖는 이유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 관계적 가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이가 지라는 것을 보면 즐거움 자녀 때문에 부부가 더 가까워짐	3 3 3	.66 .71 .63	.67 .72 .62	.68 .71 .59	
	[자녀 갖지 않는 이유 개인적 제약 사회적 제약 외부적 제약]	재정적으로 부담이 됨 친구와 만나기 어려워짐 주택문제 등이 여의치 않음	3 3 3	.81 .72 .74	.81 .78 .75	.76 .79 .72	
	학업 기대	-	앞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기대 : 청소년 앞으로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기대 : 부모	1 1	-	-	-
		사회성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 관계효능감	당신은 모임을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을 얼마나 잘 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6 6 6	.82 .78 .68	.79 .78 .76	.81 .77 .75
	자기 효능감	이러움극복효능감	일이 엉망이 되고 있을 때에도, 얼마나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까	6	.81	.80	.81
		자기주장효능감	주위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 의견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습니까	6	.74	.77	.77
		정치효능감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8	.87	.85	.84

### Ⅲ. 결과분석

#### 1.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생활목표

<표 3>은 청소년과 부모의 생활목표 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하위변인들 중에 특히 가정화목은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집단 모두 4점 이상으로 다른 하위변인들보다 가장 높았다. 변량분석 결과, 4개 하위변인 모두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uncan 검증 결과, 가정화목 자아실현 부귀영화의 3개 하위변인에서는 청소년이 부모보다, 사회봉사에서는 부모가 청소년보다 더욱 높은 값을 보였다.

<표 3> 청소년과 부모의 생활목표 차이

종속변인	하위변인	독립변인	M (SD)	F
생활목표	사회봉사	청소년	3.40 (.69) <sup>a</sup>	7.21 ***
		아버지	3.50 (.59) <sup>b</sup>	
		어머니	3.47 (.58) <sup>b</sup>	
	가정화목	청소년	4.28 (.63) <sup>b</sup>	36.22 ***
		아버지	4.10 (.63) <sup>a</sup>	
		어머니	4.06 (.63) <sup>a</sup>	
	자아실현	청소년	4.14 (.60) <sup>b</sup>	113.70 ***
		아버지	3.80 (.63) <sup>a</sup>	
		어머니	3.77 (.64) <sup>a</sup>	
	부귀영화	청소년	3.49 (.73) <sup>b</sup>	32.38 ***
		아버지	3.29 (.61) <sup>a</sup>	
		어머니	3.29 (.60) <sup>a</sup>	

\*  $p<.05$ , \*\*  $p<.01$ , \*\*\*  $p<.001$ , <sup>a, b, c</sup>는 Duncan 검증 결과임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과 부모집단 모두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한 생활목표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청소년이 부모보다 더욱 가정의 화목을 중요시 여겼으며, 자아실현이나 부귀영화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추구하였다. 즉 화목한 가정을 위해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에서 성취하여 보람을 느낀다든가, 많

은 돈을 가진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영화를 누리는 것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부모 집단보다 더욱 강한 목표의식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라든가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헌신 등 사회봉사와 관련된 생활목표는 부모 집단이 청소년보다 더욱 강하였다.

## 2.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가족관련 가치

〈표 4〉는 청소년과 부모의 이상적인 결혼상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집단별 평균을 보면, 4개 하위변인 중에서 훌륭한 인격이 세 집단 모두에서 4점 이상의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 외에 재미있는 사람, 경제력, 멋있는 외모 모두 3점과 4점 사이의 값을 보였다.

F검증 결과, 이상적인 결혼상대의 조건으로서 훌륭한 인격에 대해서는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 나머지 3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p<.001$  수준의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Duncan 검증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사람에 대해 청소년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순서였다. 멋있는 외모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평균이 높았다. 그러나 경제력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 청소년의 순서를 보였다.

〈표 4〉 청소년과 부모의 이상적인 결혼상대 인식 차이

종속변인	하위변인	독립변인	M (SD)	F
이상적인 결혼상대	재미있는 사람	청소년	3.94 ( .65) <sup>c</sup>	25.37 ***
		아버지	3.74 ( .63) <sup>a</sup>	
		어머니	3.87 ( .67) <sup>b</sup>	
	경제력	청소년	3.80 ( .79) <sup>a</sup>	15.81 ***
		아버지	3.88 ( .68) <sup>b</sup>	
		어머니	3.98 ( .66) <sup>c</sup>	
	훌륭한 인격	청소년	4.17 ( .64)	1.78
		아버지	4.12 ( .62)	
		어머니	4.12 ( .63)	
	멋있는 외모	청소년	3.45 ( .89) <sup>b</sup>	94.24 ***
		아버지	3.05 ( .72) <sup>a</sup>	
		어머니	3.02 ( .70) <sup>a</sup>	

\*\*\*  $p<.001$ , <sup>a, b, c</sup>는 Duncan 검증 결과임

청소년과 부모 모두 이상적인 결혼상대의 조건 4개 중에 훌륭한 인격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세대를 불문하고 이상적인 결혼상대로서 훌륭한 인격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보여준다. 한편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재미있는 사람 및 외모가 멋있는 사람을, 부모들은 청소년 보다 경제력을 더 중요시 여겼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욱 경제력에 비중을 두었다.

〈표 5〉는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인식을 X<sup>2</sup> 검증한 결과인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청소년과 부모집단을 비교해 보면, 모두 2명이라는 응답이 거의 60% 전후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3명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높은 반응으로 청소년은 1명인데 비해 부모 세대는 4명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해 청소년이나 부모세대 모두 2명이라는 생각을 10명 중에서 6명 가까이 하고 그 다음으로 3명이라는 응답을 10명에서 2-3명 정도 하는 점에서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부모는 4명을, 청소년을 1명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음으로써, 청소년보다는 부모가 더 많은 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5〉 청소년과 부모의 이상적 자녀 수 인식의 차이

이상적 자녀 수 \ 집단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계
0명	18 ( 1.8)	4 ( .4)	7 ( .7)	29 ( .9)
1명	78 ( 7.6)	25 ( 2.5)	39 ( 3.8)	142 ( 4.6)
2명	642 (62.9)	545 (53.4)	573 (56.3)	1760 (57.6)
3명	189 (18.5)	323 (31.7)	281 (27.6)	793 (25.9)
4명	60 ( 5.9)	93 ( 9.1)	98 ( 9.6)	251 ( 8.2)
5명	30 ( 2.9)	29 ( 2.8)	20 ( 2.0)	79 ( 2.6)
6명	2 ( .2)	-	-	2 ( .1)
7명	1 ( .1)	1 ( .1)	-	2 ( .1)
전 체	1020 (100.0)	1020 (100.0)	1018 (100.0)	3058 (100.0)
$\chi^2 = 104.59 (p<.001), df = 14$				

( ) 안은 %임

〈표 6〉은 청소년과 부모의 자녀 성별 선호도의 차이를 X<sup>2</sup> 검증한 결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과 아버지 및 어머니 집단 모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는 반응이 70% 내외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는 점에서 일치하였으나, 청소년은 두 번째로 딸이라는 반응율이 높은 반면에, 부모집단에서는 아들이라는 반응율이 두 번째로 높은 차이가 있었다. 이와같이 아들에 대한 높은 반응율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집단에서 현저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이나 부모나 모두 아들 딸 구분없이 상관없다는 생각을 10명 중에서 7-8명 정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경우는 그 다음으로 딸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에, 부모집단에서는 아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아들 선호도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욱 강하였다.

〈표 6〉 청소년과 부모의 자녀 성별 선호도 차이

자녀성별 선호도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계
딸	167 (16.7)	73 ( 7.2)	125 (12.5)	365 (12.1)
아들	64 ( 6.4)	231 (22.8)	133 (13.3)	428 (14.2)
상관없음	769 (76.9)	707 (69.9)	744 (74.3)	2220 (73.7)
계	1000 (100.0)	1011 (100.0)	1002 (100.0)	3013 (100.0)
$X^2 = 137.50 (p<.001), df = 4$				

( ) 안은 %임

자녀가치를 분석한 결과가 〈표 7〉과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자녀를 갖는 이유들의 평균을 보면, 심리적 가치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관계적 가치로서, 모두 3 ‘보통’에서 4 ‘그렇다’ 사이의 값을 보였다. 이에 비해 사회적 가치는 3 ‘보통’에서 2 ‘아니다’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청소년과 부모 집단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사회적 가치와 심리적 가치에서 p<.001 수준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관계적 가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Duncan 검증 결과를 보면, 자녀를 갖는 이유와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의 경우에 세 집단 중에서는 아버지의 평균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어머니의 순서로 나타났다. 심리적 가치에서는 청소년과 어머니집단이 아버지 집단보다 더욱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므로 자녀를 가지려는 이유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부모 모두 자녀를 가지면 즐겁다든가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았을 때의 즐거움과 같은 심리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녀를 가지면 부모로서 책임감이 증가하고, 늙었을 때 외롭지 않으며, 자녀 때문에 부부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등, 자녀가 갖는 관계적인 가치도 높았다. 그러나 가문을 이어간다는가 아들을 갖고 싶다는 등의 사회적 가치는 심리적 가치나 관계적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집단별로 비교했을 때, 자녀로 인한 심리적 가치는 어머니나 청소년이 아버지보다 더 의미있게 인식하였고, 자녀의 사회적 가치는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더 비중있게 인식하였다. 자녀의 관계적인 가치에서는 청소년이든 부모 집단이든 차이가 없이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표 7> 청소년과 부모의 자녀를 갖는 이유 차이

종속변인	하위변인	독립변인	M (SD)	F
자녀를 갖는 이유	사회적 가치	청소년	2.55 (.85) <sup>b</sup>	13.53 ***
		아버지	2.66 (.81) <sup>c</sup>	
		어머니	2.47 (.79) <sup>a</sup>	
	심리적 가치	청소년	3.85 (.74) <sup>b</sup>	10.40 ***
		아버지	3.71 (.67) <sup>a</sup>	
		어머니	3.80 (.67) <sup>b</sup>	
관계적 가치	청소년	3.65 (.76)	.39	
	아버지	3.63 (.67)		
	어머니	3.66 (.68)		

\* p<.05, \*\* p<.01, \*\*\* p<.001, <sup>a, b, c</sup>는 Duncan 검증 결과임

<표 8> 청소년과 부모의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 차이

종속변인	하위변인	독립변인	M (SD)	F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	개인적 제약	청소년	2.61 (1.04) <sup>b</sup>	9.82 ***
		아버지	2.52 (.94) <sup>a</sup>	
		어머니	2.72 (.96) <sup>c</sup>	
	사회적 제약	청소년	2.16 (.81)	2.95
		아버지	2.07 (.75)	
		어머니	2.12 (.78)	
외부적 제약	청소년	2.02 (.80)	.87	
	아버지	2.05 (.79)		
	어머니	2.06 (.79)		

\*\*\* p<.001, <sup>a, b, c</sup>는 Duncan 검증 결과임

〈표 8〉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평균값들이 2 ‘아니다’에서 3 ‘보통’ 사이를 나타냄으로써,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지만, 세 하위변인 중에 개인적 제약의 평균이 높았다. 각각의 하위변인들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개인적 제약에서만  $p < .001$  수준의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사회적 제약과 외부적 제약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개인적 제약 변인에 대해 Duncan 검증 결과는, 세 집단 모두 이질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가장 평균이 높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아버지의 순서이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등의 개인적인 제약에 대해 어머니가 가장 동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 아버지의 순서였다. 사회생활에서 친구와 만나기 어렵다든가 이웃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인 제약이나, 주택문제가 여의치 않다든가 배우자가 원하지 않음 등과 관련된 외부적인 제약에서 청소년과 부모는 차이가 없었다( $p > .05$ ).

### 3.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학업에 대한 기대

〈표 9〉는 청소년과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X^2$  검증한 결과로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비슷한 반응이었고, 청소년과 부모의 반응에 차이가 있었다. 세 집단간의 학업기대에 대한 반응율을 비교해 보면, 대 졸이 과반수 이상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박사 졸업이 약 1/4 정도로 두 번째 순서를 나타내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반응율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은 대 졸이 70%로 2/3에 가깝고, 박사 졸업이 15% 정도로 석사 졸업과 비슷한 비율의 기대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부모 집단은 대 졸에 대해 응답자의 약 1/2 정도가 반응하고, 박사 졸업에 대해 거의 30% 내외의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청소년이든 부모든 대 졸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았지만, 특히 부모는 박사학위를 취득에 대해 매우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최종 학력에 대한 기대보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9> 청소년과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 차이

학업기대 \ 집단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계
고등학교 졸업	22 ( 2.2)	34 ( 3.4)	24 ( 2.4)	80 ( 2.6)
대학교 졸업	714 (70.0)	557 (55.0)	534 (52.8)	1805 (59.3)
석사 졸업	129 (12.6)	132 (13.0)	145 (14.3)	406 (13.3)
박사 졸업	155 (15.2)	289 (28.6)	308 (30.5)	752 (24.7)
전 체	1,020 (100.0)	1,012 (100.0)	1,011 (100.0)	3,043 (100.0)
$\chi^2 = 91.28 (p < .001), df = 6$				

( ) 안은 %임

#### 4.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자기효능감

<표 10>은 청소년과 부모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로서, 6개 하위변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하위변인별 Duncan 검증 결과, 관계효능감에서만 청소년이 부모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그 외의 모든 하위변인 즉 사회성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정치효능감에서 모두 아버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정치효능감은 어머니의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 아버지의 순서였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부모집단 모두 관계효능감이 높아서 주위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다는 효능적 신념이 강하였다. 이와같은 관계효능감은 청소년이 부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그 외에 사회생활에서 모임의 분위기를 얼마나 잘 유도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사회성이라든가, 불쾌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마나 대처를 잘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라든가, 어려운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잘 극복하며 사기를 유지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어려움극복효능감 및, 주위사람들과 의견이 다르거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자기주장효능감의 면에서는 아버지 집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정치효능감은 세 집단 모두 매우 낮았다. 그러므로 세대를 불문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잘 표현하고 정책을 잘 이해하며 나아가서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정

치효능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가장 낮은 정치효능감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아버지의 순서였다.

<표 10> 청소년과 부모의 자기효능감 차이

종속변인	하위변인	독립변인	M (SD)	F
자기효능감	사회성효능감	청소년	3.10 (.76) <sup>b</sup>	15.61 ***
		아버지	3.18 (.64) <sup>c</sup>	
		어머니	3.00 (.69) <sup>a</sup>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청소년	2.73 (.75) <sup>a</sup>	48.50 ***
		아버지	3.02 (.62) <sup>c</sup>	
		어머니	2.89 (.63) <sup>b</sup>	
	관계효능감	청소년	3.51 (.64) <sup>b</sup>	8.14 ***
		아버지	3.41 (.60) <sup>a</sup>	
		어머니	3.42 (.59) <sup>a</sup>	
	어려움극복효능감	청소년	3.00 (.73) <sup>a</sup>	46.53 ***
		아버지	3.28 (.63) <sup>c</sup>	
		어머니	3.13 (.64) <sup>b</sup>	
자기주장효능감	청소년	3.18 (.70) <sup>a</sup>	20.95 ***	
	아버지	3.32 (.63) <sup>b</sup>		
	어머니	3.15 (.64) <sup>a</sup>		
정치효능감	청소년	2.64 (.83) <sup>b</sup>	34.35 ***	
	아버지	2.81 (.75) <sup>c</sup>		
	어머니	2.54 (.73) <sup>a</sup>		

\* p<.05, \*\* p<.01, \*\*\* p<.001, a, b, c는 Duncan 검증 결과임

## IV. 논의 및 결론

### 1. 요약 및 제한점

이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심리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4개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생활목표로서 청소년과 부모 모두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점에서 일치했다. 부모는 청소년보다 사회봉사를, 청소년은 부모보다 가정화목, 자아실현, 부귀영화를 더 중요한 생활목표로 인식했다.

둘째, 가족관련 가치에 대한 결과로서, 이상적인 결혼상대의 조건으로 청소년과 부모 모두 훌륭한 인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은 재미있는 사람이나 외모가 멋있는 사람을, 부모는 경제력 있는 사람을 더 중요시 하였다. 자녀 수에 있어 청소년과 부모 모두 2명이 적절하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청소년들이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 수를 이상적으로 인식하였다. 자녀의 성별 선호도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 모두 아들 딸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청소년은 딸을, 부모는 아들을 선호하였다. 자녀를 갖는 이유로 청소년과 부모 모두 심리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가 높았고 사회적 가치가 낮은 점에서 일치하였다. 집단별로는 아버지가 가문이나 아들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했고, 자녀양육의 즐거움과 같은 심리적 가치는 낮았다.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로서 개인적 제약은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아버지의 순서였다.

셋째, 청소년 본인보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하였다.

넷째, 청소년과 부모 모두 관계효능감이 가장 높고, 정치효능감이 가장 낮은 점에서 일치했다. 청소년은 부모보다 관계효능감이 높았으나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낮았다. 아버지는 청소년보다 어려움극복효능감 및 자기주장효능감이 높았다. 어머니는 정치효능감과 사회성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들이 밝혀졌지만, 이 연구가 갖는 제한점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목표, 가족관련 가치, 학업기대, 자기효능감의 측면에 초점을 두으로써, 심리특성의 제한된 부분만이 다루어졌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심리특성 변인 및, 나아가서 행동특성들에 대해서도, 세대집단간의 차이를 폭넓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심리특성 변인들에서 청소년과 부모세대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대 집단간의 차이 분석에서 나아가, 부모의 심리 행동적 특성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차이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 검증이 이루어져야,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료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이 연구가 갖는 여러 제한점들은 추후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2. 논의 및 시사점

이 연구가 갖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밝혀진 결과들 중에 주목해야할 몇 가지가 있다. 동일한 결과를 갖고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곱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의 시사점은 연구차원에서는 후속연구를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인의 심리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미래 한국 문화의 긍정적 진화의 방향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는 효능적 신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과 부모가 여러 차이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효능적 신념의 차이가 관심을 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버지는 청소년보다 어려움극복효능감 및 자기주장효능감이 더 높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나 청소년보다 정치효능감과 사회성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청소년은 부모보다 관계효능감이 높았으나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은 낮았다.

청소년과 부모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특정 집단이 일관되게 높은 효능감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위변인에 따라 집단별 효능감 수준이 달랐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역에 따라 매우 특수한 하위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 Bandura(1997) 지적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

청소년, 부, 모 집단별로 다른 효능감의 하위변인 특성을 검토해 볼 때, 효능적 신념의 형성은 각 집단이 속한 환경적 특성 내에서의 누적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Bandura(1997)도 누적된 성공경험이 효능감 증진에 가장 핵심적 요인이 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아버지 집단이 어려움극복효능감과 자기주장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이 어려움극복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대부분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면서 경험의 폭이 한정되지만,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유형의 다양성만이 아니라 극복해야하는 어려움의 강도도 매우 강력하다. 아버지들은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경험을 통해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더욱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들은 사회성효능감과 정치효능감이 세 집단 중

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사실도 이 연구의 어머니 집단에서 전업주부가 과반수가 넘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업주부들은 가사활동을 주로 하고 공식적인 직업을 갖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의 경험 빈도가 낮기 때문에 사회성을 개발할 기회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제한된다. 그리고 조직에서의 정치적 활동에 관여도도 낮기 때문에 정치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의 과정에서 성공적인 해결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면, 어려운 역경은 어려움극복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환경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필요는 없다. 그러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이겨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효능감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한 환경만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의미있는 성취를 이룬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통한 효능감의 형성이,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중요하다. 실제로 높은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행복의 의미있는 예언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박영신·김의철, 2009a; 박영신·김의철, 2009b)에서 밝혀졌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건전한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나치게 과보호적인 양육방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효능감을 형성할 기회를 감소시키므로, 장기적으로는 성장가능성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지원의 차원 내에 존재해야 하며, 그것이 과보호적 양육태도로 되어 자녀의 효능감 형성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극진한 자녀 사랑의 절제된 표현과 양육방법의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청소년과 부모 세대 모두 높은 관계효능감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과 부모가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집단 모두 어려움극복효능감, 스트레스대처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사회성효능감, 정치효능감보다 관계효능감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이와같이 관계효능감이 높은 경향은 초, 중, 고,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박영신·김의철(2006)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네 집단 모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

감, 사회성효능감보다도 관계효능감 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높은 관계효능감을 보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와 관련된 효능감을 계속 개발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한국 사회에서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박영신·김의철·탁수연, 2002)이며,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요소(박영신·김의철·김묘성, 2002)인 것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므로 관계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높은 관계효능감을 통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높은 관계효능감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의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맺어지는 인맥의 구축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개인적으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내집단 편애를 가속화시켜서 외집단에 대한 배척으로 폐쇄적인 우리내 집단주의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나 기회가 제공되기보다, 내집단 선호와 폐쇄적인 신뢰체제로 인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저해가 되기도 한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단단한 결속력이 처음에는 집단을 공고하게 하고 바람막이와 같은 안전장치로 작용하지만, 그 속에 안주하게 될 때 발전에 한계가 있고, 또 외부세계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음으로써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Yamagishi(1998)도 일본 사회가 가까운 사람끼리 안심하는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외집단에 대해서도 진정한 신뢰의 가능성을 개방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사회의 신뢰구조를 해부하고 일침을 가한 Yamagishi(1998)의 시각은, 우리가 한국 사회의 신뢰구조를 분석해 볼 때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이 개발한 높은 관계효능감이 내집단 구성원의 결속을 폐쇄적으로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외집단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없이 조화로우며 유지하면서 동시에 조직이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 발전을 혁신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가 치우침 없이 공존할 수 있을 때, 한국 사회의 많은 하위 조직들이 보다 건강한 체제로 계속 탈바꿈하면서 질 높은 생산과 창의력의 발휘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정치효능감이 매우 낮았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과 부모 모두 자기효능감의 여러 하위변인들 중에 정치효능감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정룡(2002)의 연구에서도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학업성취수준에 관계없이 낮은 정치효능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낮은 정치효능감은 정치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신, 나아가서 정치적인 무력감이나 소외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금숙(2002)의 연구에서 성인 여자들이 정치효능감도 낮고 신뢰수준도 낮은 정치적 소외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풍토나 정치가에 대한 강한 불신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김의철·박영신(2004b)이 청소년(중, 대학생)과 성인(부모, 교사)의 한국 정치에 대한 지각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2%만이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나머지 약 95%는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핵심내용은 정치 불신, 정치인 자질부족, 부정 부패, 과벌주의, 후진성, 변화필요성이었다. 박영신·김의철(2005b)이 청소년(초, 중, 고등학생)과 성인(부모)의 정치가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정치가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족, 학교친구/교사, 이웃, 공무원보다 가장 낮았으며, 강한 불신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북유럽사람들보다 정치에 대해 불신하고 낮은 정치효능감을 나타내었다. (Kim, Helgesen, & Ahn, 2002).

이 연구의 결과에서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낮은 정치효능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시선을 긴장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야할 주역들인데, 아버지 집단보다 낮은 정치효능감을 보이는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전반에 팽배한 정치 불신과 정치적인 무력감 및 개인적인 소외를 수용할 수 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치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구성하는 사회풍토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인의 사람 신뢰의 기준으로서 훌륭한 인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 연구에서 이상적 배우자로서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재미있는 사람 및 외모가 멋있는 사람을, 부모들은 청소년보다 경제력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차이가 있었지만, 훌륭한 인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두 세대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뿐만아니라 훌륭한 인격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됨으로써, 경제력과 같은 능력보다는 훌륭한 인격이나 성

실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부부관계는 혈연이 아니면서 자녀라는 가장 가까운 혈연을 낳고 함께 양육하는 타자 중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관계이므로,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배우자의 선정 기준으로 무엇에 비중을 두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가족관련 가치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인간관계 신뢰와 관련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난 남사람보다는 인격이 훌륭한 된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신뢰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이상적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으로만이 아니라, 이익과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직장의 인간관계에서도 신뢰의 기준이, 일에 대한 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중요시 여겼다. 권혁호·박영신·김의철(2004)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인이 상사나 동료로 신뢰하는 이유로, 개인의 업무처리능력보다는 정서적인 배려나 성실성이나 가족과 같음이 중요하였다. 심지어 대통령을 투표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청소년과 성인 모두 지도력이나 외적 조건보다 도덕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김묘성·김의철·박영신, 2006). 물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기준이 부모의 희생에 있었지 부모의 능력에 있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핵심 기준도 자녀의 능력이 아니라 자녀의 성실함과 정직함이었다(김의철·박영신, 2004a). 이러한 인간관계 신뢰의 기준은 배우자와 같은 횡적인 관계, 종적인 관계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또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신뢰하는 기준에서도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

세대를 불문하고 한국 사람들이 능력보다는 성실 도덕성과 같은 인격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유교적인 가치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Kim(1995)이 지적했듯이, 서구사회가 합리와 이성을 추구하며 개인의 자유와 독특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가치에 토대해 있다면, 동아시아 문화권의 한국은 관계성과 우리성을 강조하고 유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으로 집단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대인관계에서 순응하고 도움을 나누며 공동운명체로서 개인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개인 내적으로는 이러한 조화로운 관계의 유지를 위해 수양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이 강조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수양을 통해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을 한국인들은 신뢰하며, 이러한 기본적 정신은 많은 세대차이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국인의 문화적인 특성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국인의 생활목표로서 화목한 가정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성인들은 사회봉사를, 청소년들은 사회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성공 또는 가정의 화목과 같은 목표에 더 관심을 갖는 차이가 있었지만, 청소년과 부모 모두 가정화목을 가장 중요한 생활목표로 인식하였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명언 외(2000) 및 김의철 외(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김혜영(2001)의 연구에서 개인주의 및 평등주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변화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 변화는 대학생들의 결혼관, 제사, 호주제 및 부모 성 함께 쓰기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결과였다. 이와같은 구체적인 현상들에서는 가족가치가 변화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정의 화목 및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변화가 있다는 표현을 할 때에는 가족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위 구성개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선행되는 것이 요구된다.

11개국 청소년을 분석한 연구(이종원, 1994)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원만하지 못한 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사는 매우 높았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은 엄격한 아버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청소년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외국 청소년들에 비해 동아시아의 유교적 가치들을 상당히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화목한 가정의 목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들로 구성되는 집단 내에서 가족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원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학교에서 교사학생관계를 보면 교사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선후배 관계에서 형 누나 오빠와 같은 가족관계 호칭들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통해, 화목한 가족관계를 확대하여 원만한 관계맺기를 추구한다. 심지어 직장 동료나 상사 부하관계에서도 화목한 가족행사나 원만한 가족관계의 역동과 같은, 소위 가족같은 분위기에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나아가서 집단응집력을 높여 성취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김의철·박영신(2005)이 동아시아와 북유럽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사람들은 민주적이고 관용적인 지도자를 선호하였으나,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와 같이 온정적이면서도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였다.

집단내의 화목한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늘 긍정적 효과만 갖는 것은 아니며, 끈끈한 관계 중심의 집단 구성은 때로 외집단에 대해 폐쇄적으로 되어 외부와의 소통이나 창의적 혁신이 부족할 수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 중심이 되다보면 목표의 성취나 성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관계적 문제로 인한 구성원의 스트레스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한국인의 가족주의 지향이 혈연 학연 지연 등 폐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성취와 행복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집단응집력 형성의 기초 가치로 바람직한 진화를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홍국·平林進(1999)이 한일 대학생의 가치관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의 화목과 같은 가족관련 가치를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보다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서로 돕고 상부상조한다든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든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든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호이해하는 것 등 타인과 관련된 가치에서는 일본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현저하게 중요하게 평가했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은 가족 내의 질서를 지키고 가정의 화목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가정 밖 즉 사회생활에서의 질서를 지키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타인과의 협조는 소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가족과 같이 매우 가까운 내집단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반적인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때로는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학교나, 직장이나, 많은 집단에서 상호 협력하여 성과를 내려고 할 때,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박영신·김의철(2005a)은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 신뢰의 형성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대하고 외집단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인들이 화목한 가정에 대한 목표가 강하지만, 목표와 일치하여 화목한 가정생활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인들 경우에 높은 이혼율이나 자녀들 경우에 높은 가출율이 바로 목표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가족갈등은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박영신·김의철·김묘성, 2002)에서 가족간 불화 등 가정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생활목표나 가치

를 머릿속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남아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한국 부모는 자녀에 대해 높은 학업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 기대수준은 자녀 본인의 학업 기대 수준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욕구에 관계없이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크며, 성적을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힌 손승영(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한국 부모들의 학업에 높은 관심과 기대는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2006)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아버지는 스웨덴 아버지보다 학업에 관심이 높았으나, 자녀의 이성관계나 취미 생활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부모들은 화목한 가정을 위해 본인들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희생은 자녀의 성공과 학업성취를 위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높은 학업 기대를 한다. 자녀들도 화목한 가정을 위해 부모에 대해 순종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로 지각하고 있다(박영신·김의철, 2004). 이러한 상호작용은 부모자녀간의 공유된 자기개념을 토대로 한 것이며, 자녀의 성취를 대리적 성취로 받아들이는 부모의 마음(Park, 2008)과 연결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높은 학업기대 수준은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양 면을 지닌다. 한국 부모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세계에서 공인된 높은 학업성취가 가능했고,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결과로 인해 천연자원도 부족하고 전쟁으로 피폐했던 한국 사회가 짧은 기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다. 한국 사회 높은 교육적 성취의 기반이 되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밝힌 연구들(박영신·김의철, 2002)이 있다. 예컨대 학생(신영이·박영신·김의철, 2010)이든 부모(박영신·김의철·한기혜, 2009)든, 한국 사람들은 학업충실을 부모에 대한 효도의 방법으로 지각하였다.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희생 때문이라고 지각하는데(박영신·김의철, 2005a), 이러한 희생에 대한 죄송함으로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향상되고 학습시간이 증가하여(박영신·김의철·정갑순, 2004),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강한 유대와 겹쳐진 자아개념(Kim, 2002)은 부모로 하여금 높은 기대와 실제적인 희생, 그리고 자녀의 성취를 대리적 성취로 받아들여, 계속 이어지는 사회적 지원

을 가능하게 하는 순환을(Park, 2008) 이루어 나가고 있다.

한국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와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인다는 증거는 재미한인가족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김은정(2006)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의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기대, 의사소통, 훈육 방법 등 가정 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

그러나 다른 한 면으로는 학부모와 사회의 강한 요구로 학교교육이 학업성취 위주가 되므로 인성교육에 소홀함이 있고,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강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이선이 · 박천식 · Quenzel · Conway-Turner · Matsuda, 2007), 미국, 독일, 스웨덴의 아버지가 한국과 일본의 아버지보다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한국 청소년의 부모 자녀관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대체로 지지적 관계가 낮고 통제적 관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해 볼 때,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높은 학업 기대는 다른 나라의 부모들에 비해 매우 통제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통제적인 방식이 때로 청소년 자녀와 갈등관계를 유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지도 조언도 학업중심으로 통제적인 경향이 있음이, 국제비교 사례분석에서 나타났다(김현철 · 김은정 · 손승영 · 함인희 · 최연혁 · Sherif · Quenzel, & Watanabe, 2007). 김현철 · 김은정 · 손승영 · 함인희 · 최연혁 · Sherif · Quenzel · Aota(2007)는 4개국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사회화과정에 대해 질적 비교를 한 결과,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를 중요시하고 경쟁논리를 내면화시킴을 밝혔다. 부모들의 자녀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반면에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은 부모와 친밀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현상이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면만을 부각하여 갈등적 시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면은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안목에서, 한국 학부모의 높은 교육기대와 성취압력을 긍정 에너지로 잘 유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노력이, 앞으로 개인 및 사회차원에서 추구해나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일곱째, 자녀가치 등 부모 세대의 인식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부모들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이상적인 자녀 수를 2명으로, 자녀 성별과 관련하여 아들 딸 관계없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점을 볼 때, 현재 청소년의 부모들은 조부모 세대들과 질적으로 다른 자녀가치 인식을 갖고 오히려 자녀 세대인 청소년과 비슷한 자녀가치를 갖고 있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세대집단을 구분해 본다면, 1950년 한국전쟁 이전에 출생하고 현재 60세 이상인 집단은 전통가치를 지닌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50대인 집단은 1950년-1960년대 사이에 베이비붐이 있을 때 출생하였고, 농경사회를 경험한 집단이다. 한편 이 연구의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현재 30대나 40대인 집단은, 1970-1980년대 산업사회에 태어난 집단이다. 이 연구의 청소년 집단은 1990-2000년대 정보화시대에 태어나, 부모와 무선 태줄로 연결된 M세대(밀레니엄 세대; 양유신 역, 2010)이다.

전통세대나 베이붐세대에 비해, 현재 청소년 자녀를 둔 30-40대 부모들은 심리적인 특징에서 상당한 변화를 하였으며, 현재의 50대나 60대 이상의 집단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해 청소년들이 부모보다 더 적은 수의 자녀 수를 선호하였지만, 두 집단 모두 이상적인 자녀 수를 2명으로 인식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60대 이상 노인세대의 인식은 매우 다르다. 김미숙·김의철·박영신(2010)이 평균 35세의 유아 어머니와 평균 62세의 외할머니 집단을 비교한 결과, 유아 어머니들은 이상적 자녀 수를 2명(53.4%), 3명(28.8%)의 순서로 응답한 반면, 외할머니는 4명 이상(46.0%)이 가장 많았다. 또한 자녀 성별에 대한 생각에서도 유아 어머니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54.0%), 딸이 1명은 있어야 한다(20.2%)의 순위를 보였는데, 외할머니는 아들이 1명은 있어야 한다(32.2%)고 반응하였다. 또한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으로 외할머니는 유아 어머니보다 가문을 잇는 다든가 노후대책 등 사회적 측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유아 어머니는 심리적 즐거움과 같은 개인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중에서도 자녀와 관련된 가치가 젊은 부모 집단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젊은 30대 부모세대의 자녀와 관련된 가치인식의 변화가 최근 한국 사회의 낮은 출산율과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가족가치의 변화에 대해 문화심리학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Kim & Park, 2005).

현재 부모세대들은 과거의 부모세대들(현재의 조부모세대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가족 및 자녀가치를 향해 변화하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조부모 세대와 청소년 세대 사이에서, 조부모의 가치에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청소년과 일치하는 맥락의 자녀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및 세대차 연구를 위해, 청소년과 부모세대만이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세대간의 차이를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Kim, Park, Kwon과 Koo(2005)는 유아 어머니와 청소년 어머니집단의 자녀가치 차이에 대해 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근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구조 변화와 한국사회의 가치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연계성을 규명해 나가는데 의미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심리특성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앞으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심리특성을 규명해 나감으로써, 한국인 의식의 변화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과 의미있는 탐구가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마무리하며,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생을 거쳐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청소년기 동안 신뢰의식의 변화를 검토한 박영신·김의철(2006)의 연구를 상기하게 된다. 그 결과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점차 성장하면서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강력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의 원인이, 청소년 개인만의 내적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사회화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다분히 크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긍정적 모델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통찰이 기성세대에게 필요하며,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을 창조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세대차이가 세대갈등으로 진전하지 아니하고, 세대 공통점이 변화없는 정체나 집단 좌절로 변질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세대차이는 미래 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고 시너지요, 세대 공통점은 한국문화 정체성 발견과 가치의 확산을 통해 미래 인류사회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는 청소년 세대가 주역이 될 미래를 향해, 이 두 가지 선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 참 고 문 헌

- 권혁호·박영신·김의철(2004). 직장인의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151~152.
- 김명언·김의철·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6권 제1호, pp. 181-204.
- 김묘성·김의철·박영신(2006).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정치성향과 대통령 투표기준의 차이: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제15권 제1호, pp. 247-265.
- 김미숙·김의철·박영신(2010). 자녀가치와 가족가치에 관한 인식: 유아 부모와 외할머니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여성심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 165-166. 5월 15일. 고려대학교 국제관.
- 김은정(2006). 재미한인가족 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양상과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1호, pp. 103-126.
- 김의철·박영신(2004a).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제2호, pp. 103-137.
- 김의철·박영신(2004b).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제3호, pp. 103-129.
- 김의철·박영신(2005). Trust, relationship, and civil society in Scandinavia and East Asia: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특집호), pp. 133-161.
- 김의철·박영신·김명언·이건우·유호식(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5권 제1호, pp. 119-145.
-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2006). 청소년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의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06-R12.
- 김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Sherif, B., Quenzel, G., & Aota, Y.(2007).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연구보고 07-R12-1.
- 김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Sherif, B., Quenzel, G., & Watanabe,

- H.(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면접조사 자료집. 연구보고 07-R12-2.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이선이 · 박천식 · Quenzel, G., Conway-Turner, K., & Matsuda, S.(2007).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7-R12-3.
- 김혜영(2001). 한국 대학생의 가족주의 변화: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2권 제1호, pp. 79-105.
-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2006).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 증진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02-05.
- 박영신 · 김의철(2002).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4호, pp. 325-351.
- 박영신 · 김의철(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 김의철(2005a).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특집호), pp. 21-55.
- 박영신 · 김의철(2005b).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 제3호, pp. 91-119.
- 박영신 · 김의철(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 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2권 제3호, pp. 85-127.
- 박영신 · 김의철(2009a).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5권 제3호, pp. 399-429.
- 박영신 · 김의철(2009b).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4권 제3호, pp. 467-495.
- 박영신 · 김의철 · 김묘성(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8권 제2호, pp. 105-135.
- 박영신 · 김의철 ·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제3호, pp. 37-59.

- 박영신·김의철·탁수연(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8권 제1호, pp. 103-139.
- 박영신·김의철·한기혜(2009). 부모가 지각한 자녀 효도의 구성개념 및 영향: 자녀 양육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제16권 제3호, pp. 203-241.
- 서정룡(2002).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정치문화의식의 관계분석.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영(2000).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의식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2호, pp. 129-152.
- 손승영(2009). 한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 사회화 연구: 부모의 기대와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 57-184.
- 신영이·박영신·김의철(2010). 초, 중, 고, 대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효도의 행동과 언어표현 토착심리분석.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93-96. 4월 24일. 한국교원대학교.
- 양유신 역(2010).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린 랭카스터·데이비드 스틸먼 저. 서울: 더숲.
- 윤옥경(2000). 사이버시대의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에 대한 전망: 세대문제 해결을 위한 장으로서의 사이버공간의 가능성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2호, pp. 55-75.
- 이종원(1994).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 제 5회 '세계청년의식조사' 결과. *한국청소년연구*, 제19호 겨울, pp. 183-218.
- 이금숙(2002). 부모와 중학생 자녀의 정치문화의식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홍국·平林進(1999). 한일 대학생의 가치관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0권 제1호, pp. 103-122.
- Bandura, A.(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Kim, U.(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psychological, cultural and ecological analysis*. NIAS Reports, No. 21.

- Kim, U.(2002). Unraveling the complexities of human destructiveness, creativity, and potential: Indigenous analysis of the self, relationship, cultures and civilizations. Presidential address of Division of Psychology and 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Singapore, July 7-12.
- Kim, U., Helgesen, G., & Ahn, B. M.(2002). Democracy,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Comparative analysis of Danish and Korean political cultur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51 No. 2*, pp. 317~352.
- Kim, U. & Park, Y. S.(2005).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s, fertility rates, and value of children in Korea: Indigenous, psychological, and cultural analysis. In G. Trommsdorff, & B. Nauck (Eds.), *The value of childre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Case studies from eight societies*. 209-237. Berlin: Pabst Science Publishers.
- Kim, U., Park, Y. S., Kwon, Y., & Koo, J.(2005). Values of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hange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54 No. 3, Special Issues*, pp. 338-354.
- Park, Y. S.(2008).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The role of self-regulation, social support, and efficacy beliefs in Korea.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 168. July 20-25, International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 Yamagishi, T.(1998). 信賴の構造: ころと社會の進化ゲーム. 東京: 東京大學 出版會.
-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2001). 신뢰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문화심리학 총서4. 서울: 교육과학사.

## ABSTRACT

### A Comparative Analysis of Generational and Psyc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 With a Specific focus on Life-goals, Family Values, Academic Aspirations and Self-efficacy

Park, Young-Kyoon\* · Park, Young-Shin\*\* · Kim, Ui-Chol\*\*\*

This study examines generational and psyc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focusing specifically on life-goals, family values, academic aspirations and self-efficacy. A total of 3,114 respondents, living in six different urban and rural areas of Korea (adolescents=1,038, their mothers=1,038, and their fathers=1,038)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oth adolescents and parents viewed harmony in the family as the most important life-goal. Parents are more likely than adolescents to emphasize the values of making a contribution to society, whilst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emphasize harmony in the family, self-actualization and wealth. Second, in terms of family values, both adolescents and parents viewed an ideal spouse as someone with a sense of personal integrity. However,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emphasize a sense of humor and good looks, while parents are more likely to emphasize financial stability. As for the number of children, both adolescents and parents viewed two children as being the ideal number, with adolescents reporting a slightly lower mean. Although both adolescents and parents did not exhibit a sex preference for their child, parents slightly favored boys, while adolescents

---

\* Senior Researche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slightly favored girls. As for the values of the children, both adolescents and parents emphasized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values and were less likely to emphasize social values. Fathers were more likely than mothers and adolescents to emphasize the social value of continuing the family line and less likely to emphasize psychological values. As for negative values in children, mothers are most likely to emphasize personal constraints, followed by adolescents and then by fathers. Third, parents had higher expectations in terms of academic achievement than adolescents. Fourth, both adolescents and parents had high relational efficacy and low political efficacy. Adolescents exhibited higher relational efficacy and efficacy in relation to coping with stress than their parents. It was further revealed that fathers have higher resiliency of efficacy and self-assertive efficacy than adolescents, whereas mothers have lower political and social efficacy than fathers and adolescents.

**Key Words** : generational differences, life-goals, family values, academic aspiration, self-efficacy

투고일 : 7월 15일, 심사일 : 9월 17일, 심사완료일 : 10월 20일

